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폴더 20번> 나를 받으옵소서	<가톨릭 성가 160번> 하느님의 어린양	<폴더 22번> 하느님 우리 주여

제 1독서 | 사무엘 16,1. 6-7. 10-13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 2독서 | 에페소서 5,8-14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 4,5-15.19-26.29.40-42

오늘의 묵상글 |

**밤이 되어 모든 것이 불안전했고
계획한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온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느님의 손에 내려놓고
그분께 내어맡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쉴 수 있다.
참으로 그분 안에서 쉬며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다.

- 성 에디트 슈타인

오늘의 복음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6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यो."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यो."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있는지요? - Fr. 김덕재 안드레아

* 불안은 왜 우리를 점집으로 이끄는가?

몇 년 전에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아이가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운동을 시켜도 되는지를 점집에 가서 물어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하기보다, '그 친구가 얼마나 불안하면 신부인 나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운동선수로서 성공할지보다는 운동선수로서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떻게 성장해 갈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불안을 무언가에 의지하거나,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안도감으로 불안을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란 오늘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이 아닌 불확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불확정적인 시간인 미래를 소유하려는 헛된 꿈속에서 불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 미래를 예단하는 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미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점쟁이의 말은 설사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알았다'는 마음 안에서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줍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완화일 뿐, 불안 자체를 없애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 하느님의 계명, 인간의 불안 앞에서 무너지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0-11절에서 점쟁이와 복술가, 요술가, 주술사 등 무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불안은 때로 하느님의 명령마저 어기도록 이끕니다. 사무엘기 상권 28장을 보면, 사울은 수냄에 진을 친 필리스티아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침묵하시자, 엔 도르에 있는 혼백을 불러 올리는 여자를 찾아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도록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안은 하느님의 계명까지도 무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사람, 아브라함**

그러나 성경은 이와 반대인 신앙인의 모습 또한 보여 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히브 11,2)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며,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불안을 극복했음을 알려 줍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히브 11,8)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히브 11,19)

아브라함은 죽음과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믿었고, 그분께서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

불확실한 미래를 안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죽음,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줍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1베드 5,7)

주술과 운세는 하느님의 돌봄을 느끼게 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신을 강요하고 강제하려는 모습을 띠고 있기에 자기중심적 삶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획득하기 위한 자기중심적 삶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성숙한 삶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3)

* **진정한 행복의 삶, 성공 대신 '섬김'을 선택하다**

결국 신앙이란 다른 이들을 돌보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섬김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섬김이 아닌 성공과 승리만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끊임없이 말합

니다. 이와 같은 부추김은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힘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세속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23항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행복이 부나 안락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영예나 권력에도 있지 않으며, 제아무리 유용해도 과학이나 기술, 예술 등 인간 업적에도 있지 않으며, 어떤 피조물 안에도 있지 않고 오로지 모든 선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만 있다."

* **성경,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려 주는 책**

모든 선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부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만 앞선다면 헛된 주술과 운세에 운명을 맡기게 되겠지만, 사랑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하고자 한다면 성경 읽기가 필수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는지 알려 주며,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드러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세속적 처세술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으며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 **하느님과의 애착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화'**

아이와 부모의 애착 관계가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는 불안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느끼며 낯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역시 하느님과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사 생활과 성경 읽기를 소홀히 여긴 채 하느님과의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다면, 불안을 자극하는 세상 속에서 안정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느끼며 무속이나 주술에 의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충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사람은, 세상 걱정보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지 사항

1. 사순시기 중 성체조배 (4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8시에 아란다 성당에서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2. 성당 공동체 가족 정보 조사 안내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더 깊이 알고, 하느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사랑과 친교를 더욱 키워 나가기 위하여 간단한 정보 조사를 실시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성전 앞에 있는 표를 가족 단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 성함, 세례명, 생일, 축일, 소공동체 반

3. 부활대축일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 안내

부활대축일(4월 5일)을 앞두고 부활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교우 여러분께서는 정성껏 꾸민 **삶은 계란 3개 이상**을 꾸민 후에 작은 박스나 바구니에 담아 **부활대축일 당일** 제대 앞으로 가져다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목회 분들의 투표를 통해 1등부터 5등까지 소정의 상품이 드리하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 * 임신부들과 태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3월: 군비 감축과 평화를 위한 기도>

“국가들이 실질적인 군비 감축, 특히 비핵화로 나아가고, 세계 지도자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4. 성주간(Holy Week) 전례 안내

<한인성당 미사>

- 주님 수난 성지주일: 3월 29일(주일), 3:00PM
- 성 목요일 주님만찬미사: 4월 2일(목), 7:00PM
- 주님 부활 대축일: 4월 5일(주일), 3:00PM

(부활대축일 후 교육관에서 식사나눔이 있습니다. 사목회에서는 '밥, 김치, 고기, 음료'를 준비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누고 싶으신 '음식 혹은 디저트' 등을 한 접시씩 준비해오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컬 영어 미사>

* 성금요일 예식과 파스카 성야는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 **페이지 성당(St.Matthew)**에서 영어미사로 봉헌됩니다.

주소: 12 Chewings Street Page, ACT 2614

- 성금요일 수난예식 : 4월 3일(금), 3:00PM
- 파스카 성야 미사 : 4월 4일(토), 7:00PM

| 봉헌금 & 교무금 | (3월 7일 ~ 3월 13일)

봉헌금	\$ 130			
교무금	\$ 310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3월 공동체 공동 실천 사항 |

다른 신자 분들 & 새로 오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